

Shim Moon Seup_The Presentation

Aug 27 - Sep 21, 2019



The Presentation 2016

"나는 순환과 반복의 에너지로 충실한 실제 속에서 생명의 원형과 만남을 제시하고 싶다. 이것을 다시 되새김하여 생명의 속삭임과 두근거림을 담아내는 일을 실현하고 싶다. 생성과 소멸, 존재와 시간, 응집성과 개방성, 공존성과 가변성을 그대로 품고 있다. ... 캔버스라는 사각 틀 안에서 감추는 것과 드러내는 것의 반복, 붓을 들고 굿기를 계속하는 행위는 끝로 나무를 내려치던 일처럼 낯설지 않다."

_심문섭

"심문섭의 작품은 붓의 작동이 만들어내는 순간의 내밀한 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붓은 안료를 머금은 채 화면 안으로 미끄러지고, 작가는 그 미끄러짐을 타면서 "파도에 휘둘리며 몸은 물살 치는 데로 바람 부는 데로 말기는" 경지에 이른다. 파야랄게 그려진 한줄기 여명은 그의 삶을 지탱해준 어떤 지표이지 않았을까."

_평론가 오광수